

“혼자만 잘 살든 무슨 재민겨?”



이흥재의
세상만사

주필

‘이건희 컬렉션’을 보려는 관람객의 발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종섭·김환기·이승노·오지호·임지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거장들이다. 이들의 작품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증받은 작품 30점으로 전시회를 열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은 연일 매진을 기록하고 있다. 표가 금세 뚫리는 바람에 입장권을 구하기 위한 ‘예약 전쟁’이 치열하다. 얼마 전 ‘백신 접종 전쟁’만큼은 아니지만, 이번엔 작품 관람의 기회를 얻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은 않다. 코로나로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문화 향유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된 것일까.

‘이건희 기증품 열풍’은 비단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대구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은 개막 2주 만에 관람객 1만 명을 돌파했다. 전경자의 ‘꽃과 나비’ 김환기의 ‘무제’ 등

작품 21점을 기증받은 광양 전남도립미술관에도 개최 시기를 묻는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주 전시를 시작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치열한 예매 전쟁과 함께 일찌감치 한 달 치 예약이 마감됐을 정도다.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용산 본관 상설관에 마련된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전에서는 저명한 점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비롯해서 석보상절과 청동기시대 ‘붉은간토기’ 등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 77점이 관람객을 맞고 있다. 일반 미술관과 달리 이곳 전시는 급속제 조각과 공예품, 도기와 토기, 고문서와 전적 등 출품작들의 형식과 성격이 폭넓고 다양하다.

확 트인 황희, 딱 막힌 황희

국립현대미술관이 소격동 서울관에 차린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에도 김환기의 걸작 ‘여인들과 향아리’ 등 34명의 작품 58점이 선을 보이고 있다. 이곳에서는 근대 고난기 한민족을 상징하는 이종섭의 ‘황소’와 박수근의 투박하지만 편안한 화강암 질감의 ‘절구질하는 여인’도 만날 수 있다. 모두 교과서나 화집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작품들이다.

이처럼 용산에 가면 한국 미술 최대 명작들을 볼 수 있고 소격동에 가면 국보나 보물급 명품을 생생하게 볼 수 있으니, 서울 사람들은 참 좋겠다. 물론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별 순회 전시를 순

차적으로 추진한다니 반갑긴 하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남는다. 이들 작품을 한데 모아 볼 수 있는 ‘국가 기증 이건의 소장품판’(이하 이건의 기증품)의 지방 건립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건의 삼성 회장의 유족은 지난 4월, 2만3천여 점의 미술품과 문화재 등을 국가미술관 등에 기증했다. 이때부터 전국의 지자체들은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분권을 내세우며 자기 지역에 기증관을 유치하기 위한 열띤 경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결과와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났다. 단 한 번의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 송현동과 용산 부지로 후다닥 결정해 버린 것이다.

또 서울인가? 기증관 유치에 공을 들인 지자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왜 서울인가? 전국이 들끓었다. 하지만 문체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30여 지자체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가 후보지로 지목한 용산가족공원은 국내 최대의 사립미술관인 ‘리움’과 같은 용산구에 있다. 후보지 중 또 한 곳인 종로구 송현동 역시 이곳과 멀지 않다. 게다가 경기도 용인에는 호암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에는 이미 수준급 삼삼가 미술관이 두 곳이나 있는데, 여기에 또 이건의 기증관을 국립으로 짓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미술관 부지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어떠한 공청회나 설명회도 연 적이 없다.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엔 응모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대신

문체부의 독단적 결정과 일방적 통보만 있었을 뿐이다. 더욱 어이가 없는 건 황희 문체부 장관의 발언이었다. “지자체의 유치 과열 경쟁은 엄청난 국고 낭비로 이어진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황 장관은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같은 여러 지자체의 주장 따위에는 원래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조선의 황희 정승은 이 사람 말에도 귀 기울이고 저 사람 말에도 귀 기울였지만, 오늘날 황희 장관은 처음부터 숨으로 귀를 틀어막은 것이다. 아무래도 문체부 내부에선 서울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지방은 그저 들러리로 내세웠지 않나 싶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의 요구가 뜨거운 판에 미리 나서서 그 ‘뜨거운 감자’를 만질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 것일 게다.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 아닌가.

이건희 기증관 왜 서울인가

문체부는 용산과 송현동을 부지로 결정하면서 “서울에 있어야 접근성이 뛰어나 문화 향유의 기회가 늘어난다”고 했다. 하지만 ‘물리적 접근성’과 ‘문화예술 향유’는 큰 연관성이 없다. 이는 방 안 통소여서 견문이 많지 않은 나의 주장이 아니라, 바깥날들이 자주 해 봐서 해외미술관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말이다. 일단 미술평론가 홍경한 씨의 말을 들어 보자.

“지구촌 곳곳엔 뜻밖의 자리에 세워졌지만 특성

화된 콘텐츠와 전문적 체계 아래 분류된 독자성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수두룩하다. 일례로 미국 매사추세츠 현대미술관은 노스애덤스라는 작은 동네 산속에 있으나, 한 해 2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다. 호주의 섬 테즈메이니아에 동지를 튼 뮤지엄 오브 올드 앤드 뉴 아트도 접근성 면에서 거의 최악이다. 그럼에도 현대미술을 다루는 과감한 실험 방식으로 호바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지구상에서 가장 메마르고 척박한 북극에 위치한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현대미술센터처럼 세계 각지엔 산간벽지임에도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 관람객들이 아침부터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는 공간이 드물지 않다.” 결론적으로 문화예술 향유 확대 차원에서라도 ‘접근성’이 좋은 서울에 기증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문체부의 ‘서울 입지론’은 근거가 아주 빈약하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접근성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과 의지이다. 이건의 기증관의 지방 건립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국토 균형 발전의 대안일 수도 있다. 문체부는 지금이라도 이건의 기증관 서울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모든 게 그렇지만 문화 또한 나날 때 모두 행복해진다. 아,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도 당신네 서울 사람들처럼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리고 싶다. “혼자(서울)만 잘 살든 무슨 재민겨?”

김홍빈 대장, 8월 4~8일 ‘산악인장’으로

분향소는 광주 염주체육관...정상 등정 사진도 공개

장애인 세계최초 히말라야 14차 완등을 달성한 김홍빈 대장(57·사진)의 장례일정이 확정됐다. 김홍빈 브로드피크 원정대 광주시 사고수대책임위원회(대책위)는 28일 “김대장의 분향소를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서구 염주체육관에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대책위는 “파키스탄에서 돌아오는 원정대원들이 3일 밤 늦게 도착하고, 많은 시민이 분향소를 찾을 것을 감안해 휴일을 포함해 장례 일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대장의 장례는 산악인장(葬)으로 치러진다. 산악인장은 박영석(2011년), 김창호(2018년) 대장 이후 대한민국 산악사에서 세 번째로 치러지는 장례절차다.

손중호 대한산악연맹 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는다. 장례위원은 대한산악연맹과 광주시산악연맹에서 구성 중이며 광주시와 광주시체육회, 광주시장애인체육회, 광주시산악연맹, 사단법인 김홍빈과 희망 만들기, 광주전남산악연맹이 실무단을 구성하는 중이다. 영결식은 8일 오전 10시에 거행된다. /김진수 기자 jeans@



28일 브로드피크 원정대가 보내온 김홍빈 대장의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 사진. <광주시산악연맹 제공>

홍남기 “집값 큰 폭 조정될 수도...추격매수 신중해야”

부동산시장 담화...사전청약, 민영주택·도심 공급물량 등에 확대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 3~4%로 관리...4대 교란행위 연중 단속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택 사전청약 대상은 기존 공공주택만 아니라 공공택지의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대책에 따라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올해 하반기 초기 청약이 이뤄진다는 점, 전문가들의 고집 인식, 금리 인상과 유동성 관리 가능성 등 대내외적 환경 등을 판단해볼 때 주택가격은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조정 내지 가격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면서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레가 뛰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를 저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 거래가 비등 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노 장관은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2·4대책 도심 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 환산을 하면 8~9% 정도 된다”며 “연간 5~6%가 되려면 하반기에는 결국 연 3~4%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연중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4대 시장 교란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짜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법정전매 부정계약 등이다. /연합뉴스

입자, 단독섬
삽니다. 010-6837-4700

금매물과 투자
경매물건에 투자
하실 분. 010-3605-5000

<p>장성 토지 (매매 분양)</p>	<p>상가매매 (상무지구)</p>	<p>은사님을 찾습니다</p> <p>현재 75세 정도이고 전라남도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신 양송자 선생님을 찾습니다.</p> <p>010-9989-7465</p> <p>기도희</p>	<p>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p> <p>당 회사는 2021년 7월 22일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155,000,000원을 금5,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15,000주에 대하여 임의유상소각하기로 하여 발행주식총수 15,500주를 5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p> <p>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과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021년 7월 29일 주식회사 트리스톤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78번길 5-6 영효빌딩 9층 965호(지평동) 사내이사 정영내</p>	<p>주식 감자에 따른 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p> <p>당사는 2021. 7. 28.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 총액 금455,000,000원에서 금155,000,000원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고, 1주당 금액 10,000원 45,500주에 대하여 주주 성의도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45,500주 중 30,000주에 대하여 균등비율 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현재 45,500주에서 15,5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위 자본 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공고일 다음날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구주권을 가진 주주 및 채권자께서는 주권을 당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021. 7. 29 주식회사 창대토건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 59, 2층 (금호동, 성원빌딩) 대표이사 성덕호</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토지평수 (150, 200, 500, 1800)</p> <p>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p> <p>010-6670-9800</p>	<p>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 3천(용 4억)</p> <p>2) 월수익 300만 (보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 6층 평수 80평 매가4억5천(용 2억6천) ● 7층 평수 60평 매가 2억 3천 (용 9천) (사무실 리모델링, 배, 유출,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p>상속한정승인공고</p> <p>· 피상속인 : 망 박주남(820921-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동구 경양로243번길 8 2층 201호(계림동, 수연빌)</p> <p>피상속인 망 박주남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정비원 2021년3544호로 신청하여 2021년 7월 2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p> <p>2021년 7월 29일</p> <p>· 상속인 : 박창호(470813-XXXXXX) 전남 진도군 의신면 침계길 36-1 (침계리)</p> <p>· 신고기간 : 2021. 7. 29. ~ 2021. 10. 7. · 채권신고처 : 상속인 박창호의 주소</p>	<p>한정승인공고</p> <p>망 김복봉(590516-XXXXXX)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시행에 따른 관할 법률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p> <p>공고일로부터 2개월내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p> <p>· 시간번호 : 전주지방법원 2021년185호 상속한정승인</p> <p>· 공 고 인 : 김 민 태 · 주 소 : 광주 서구 시청로 41, 508호 (지평동, 디오빌)</p> <p>· 한정승인수리일 : 2021. 7. 23. · 공고기간 : 2021. 7. 29. ~ 2021. 9. 28. · 연 락 처 : 010-5388-7262 2021년 7월 29일</p>	<p>69년을 밝힌 호남인문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p> <p>光州日報</p> <p>· 지역안내 ·</p> <p>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통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인 222-8171 · 광 산 571-7658 · 오 채 266-7601 · 용 통 433-1503 · 우 산 433-1503</p> <p>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통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영 222-9054 · 중 정 222-8171</p> <p>남 구 : 남 부 673-6836 · 북 은 651-1833 · 북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p> <p>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송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용 임 603-0311 · 화 정 369-1625</p> <p>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p>

光州日報 010-2227-6900